

광주시내버스 기사 체력 ↓ 사고 ↑

'시민의 발'인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체력은 일반인에 비해 뒤처지고, 피로 누적과 배차 스트레스 등에 따른 사고는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5~11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 시내버스 종사자 1888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체력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민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키는 전체 평균 169.7cm, 체중은 72.5kg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평균보다 몸무게는 웃돌고, 체지방률 역시 평균을 상회했다. 혈압도 86~131로, 국민평균 80~120보다 높았다.

체력도 일반인에 못미쳤다. 근력

지구력·유연성·민첩성 등 일반인에 크게 뒤져 고령화 속 피로 누적·배차스트레스 등 3중고

과 근지구력은 전 연령대에서 평균을 밑돌았고, 심폐지구력도 평균 이하다.

특히, 심폐지구력의 경우 50~54세 기사들의 평균은 16.1로 일반인 평균 32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55~59세는 14.4 대 26(일반인), 60~64세는 13.4 대 20으로 50세를 웃도는 기사들의 심폐지구력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속한 위기대응에 도움을 주는 유연성과 순발력도 전 연령대에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50~54세 평균이 6.4로 일반인(11.7)의 반토막에 그쳤다.

순발력 역시 전 연령대에서 평균

을 밑돈 가운데 40~44세 기사의 경우 평균 176.4로, 일반인 평균(205.1)에 크게 못미쳤고, 45~49세는 176.6 대 194.6, 50~54세 167.7 대 185.2로 조사됐다.

고령화도 빨라 6월 말 현재 51세 이상은 68.6%(1622명)에 이른다.

과로와 고령화, 노선 개편과 증차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만 늘고 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교통사고 피해자는 ▲2015년 부상 217명 ▲2016년 사망 4명, 부상 195명 ▲올 상반기 사망 2명, 부상 84명 등 해마다 200명 인력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개 시내버스 통틀어 사고발생

건수도 2014년 953건, 2015년 1033건, 지난해 1021건으로 2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섰다.

불편 신고도 승강장 통과와 승차 거부, 배차시간 비준수를 중심으로 2012년 439건이던 것이 지난해 82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과로에다 고령 운전자 증가, 여기에 노선 개편에 따른 노선 증설에도 불구하고,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강은 악화되고, 사고는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과 근로 여건 개선, 버스업계 시정화 방지 등을 위해 2006년 버스 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수백여 명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50억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57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봉우 기자

후배에 발길질 태권도 사범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태권도 사범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은행 앞 길에서 후배 김모(25)씨의 허리를 발로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술값을 절반씩 나눠내기로 한 김씨가 약속을 어기고 택시비까지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와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받으려고 택시를 함께 타고 김씨의 집 근처에 내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취소 보름만에 또 음주운전 3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10시26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 호남지법동계청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한 혐의다. 상무지구에서 술을 마시고 통계청 앞까지 차를 몰고 가던 정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0%였다.

경찰 조사 결과 지역업자인 정씨는 지난 6월15일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름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 잘못해" 학생 때린 운동부 코치 사임

목포의 한 고교 운동부 코치가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의 한 고교의 30대 초반의 운동부 A코치가 제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 등에 접수됐다.

A코치는 혼란을 하던 중 학생이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세차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학생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학교측에도 폭행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선수보호위원회를 열어 A코치와 학생을 분리 조치했으며 출근을 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또 체육회 등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코치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A코치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남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했던 고소장은 취하했지만 학생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했다"며 "좋지 않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측에도 교육 등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수학여행 중 교사가 학생 음주적발 폭행

부산의 한 고교 학생들이 일본으로 수학여행 중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교육당국이 해당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모 고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지난 12일 오전 1시께 A(17)군 등 학생 4명이 잠을 자지 않고 방을 옮겨다녀 술을 마시다 교사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혼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교사의 추궁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화가 난 교사는 A군을 마구 때렸고, 처음부터 음주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학생 3명도 이 교사에 머리를 맞았다고 학교의 진상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해당 학교는 학생들을 폭행한 교사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교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뉴시스



"미꾸라지 잡았어요" 18일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옥상 텃밭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미꾸라지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고용보장 없는 매각 중단"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8일 "고용보장 없는 금호타이어 매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장과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방안, '빅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노조원들은 "워킹아웃 5년 간 고령 전담으로 회사를 정상화시켰더니 박삼구 회장은 무능 경영으로 부채 3조원, 연간 금융이자 2000억원

의 위기상황을 만들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선(先) 회사 정상화라는 상식조차 간과한 채 법정관리를 운운하며 중국업체인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추진,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매각은 일자리, 지역 경제, 국익 관점에서 충분한 정보공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매각주체인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며, 조만간 광주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에는 1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용대 지회장은 "금호 상표권 문제가 정리되면 고용 보장, 국내 설비 투자, 막튀방지 제도를 놓고 노사와 재검단 간 3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3차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통해 노조의 절박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부실 매각으로 규정, 전체 구성원들의 모든 힘을 모아 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 영양아 건강검진
- 임 검진
- 구강 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항목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	건강검진 받은 사람
심장질환 발생률	42%p 감소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	18%p 감소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